



영경묘

영경묘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모이며, 양무장군의 부인인 삼척三陟 이씨李氏의 묘이다.



영경전각



영경비각



재실

『묘』자 와가瓦家로 대문은 솟을대문으로 되어 있다. 매년 제향때 이 공간에서 하루 전부터 제물을 준비하고 제관들이 행례습의를 한다.

목조대왕 구거유지

용비어천가 6릉 중 첫 번째 룡인 목조대왕이 살던 집터이다.



어정

오시는 길



준경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333-360

☎ 033-570-3223

영경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270

☎ 033-572-2011



삼척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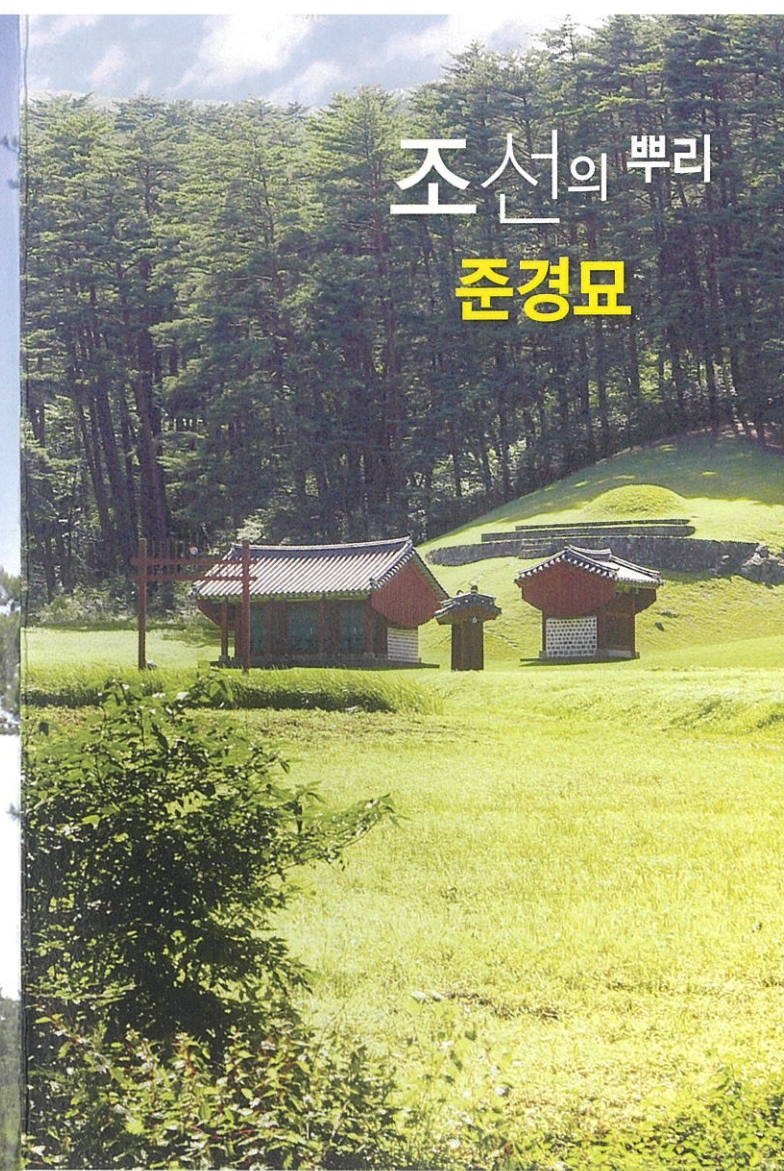
Wonderful Samcheok

조선왕조 태동기

준경묘
영경묘

삼척시

조선의 뿌리
준경묘



준경묘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대조부인 양무陽茂장군의 묘이다. 그 터는 왕기가 서린 천하의 대길지로 조선왕조를 태동시켰다는 백우금관百牛金棺 전설을 남겼다. 태조가 왕위에 오른 후 삼척을 선대묘가 있는 곳이라 하여 부로 승격시키고 홍서대紅犀帶를 하사했으며 지역사람들은 두 무덤을 능陵이라 불렀다. 1899년(광무3)에 고종황제가 령을 내려 대대적으로 수축하고 묘호를 준경濟慶 영경永慶으로 추봉하였으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수호군을 대폭 늘려 엄격히 관리했다. 준경묘는 조선 왕조 태동지로서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적 가치 등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12년 7월 12일에 강원도 기념물 제43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4호로 승격 되었다.



준경묘 풍수지리와 진응수

우리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발원되어 뿔어 내려 온 백두대간 줄기에 우뚝 솟은 두타산이 태조산太祖山이다. 그 내룡來龍이 만들어낸 진혈대지眞穴大地가 조선창업의 근원지가된 준경묘 터로 군왕지 지 君王之地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진응수眞應水라는 샘이 깊은 물이 쉼 없이 솟아올라 영천靈泉의 기氣를 마실 수 있다.



준경묘역 모송母松
천년숲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약250년) 어머니 소나무이다.



백우금관길 금강소나무 숲

이곳 소나무는 예로부터 궁궐목재로 사용 되었고 근간에는 광화문과 송례문 복원에 쓰여졌다. 목질이 단단하여 금강송인데 황장목, 춘양목, 미인송, 적송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준경묘역에 자리 잡고 있는 최고 품질의 소나무라고 하여 『준경송濬慶松』이라 부른다.

2005년에 "아름다운 천년의 숲" 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 한 바 있다.



한국 최고의 미인송인 준경송

2001년 5월 8일 충북 보은군 정이품송과 세계 최초로 전통혼례식을 올린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준경묘역의 소나무다.

장자목 長子木

2009년부터 장자목이 주는 상징적,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공공성을 지닌 12개 기관 단체에 각각 1그루씩 분양한 것 중 하나이다.



전통혼례

주례 산림청장, 신랑 측 훈주 보은군수, 신부 측 훈주 삼척시장이 되어 『전통혼례식』을 올렸으며 정이품송 꽃가루를 수분시켜 합방 절차를 밟았다.



올림픽공원에 식재된 장자목

어명따라 한양간 금강소나무

2008년 12월에 준경묘 주변 숲에서 광화문과 국보1호 송례문 복원에 사용하기 위해 소나무 20그루가 벌채됐다. 이는 우수한 목재를 전국에서 물색하였으나 오직 이곳에서만 찾을 수 있었고 또 조선 왕조의 발상지에서 목재를 조달하면 송례문과 광화문 복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까지 더할 수 있어서였다.



2008년 12월 10일
벌채 직전에 행한
고유 의식 장면



관찰사 봉심奉審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국왕의 명을 받들어 준경묘·영경묘에 탈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봉심의식이 행해졌다.

이는 충심과 효심이 담길 정성스러운 행사였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중단되었는데 삼척시에서는 민족문화 계승발전차원에서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2013년부터 정례화 하여 600여 년간 두묘를 지켜온 이곳 사람들의 정성과 봉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제각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준경묘 제각이다. 제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앞에 지은 집.

준경묘비

비 앞면에 『大韓濬慶墓』라 새겨진 묘비명은 1899년(광무3)에 고종태황제가 직접 쓴 글씨이며 뒷면 음기도 어제 御製 비문을 정2품 자헌대부 이근명李根命이 칙령을 받들어 삼가 쓴 것이다. 삼척에서 고종황제 어필비문이 『大韓永慶墓』, 『穆祖大王舊居遺址』 등 모두 3곳에 있다.



준경묘 제향의식



준경·영경묘 제향은 2015년부터 준경·영경 대제로 승격되었으며 매년 4월 20일 성대하게 봉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국궁4배를 올리고 추원보본追遠報本の 뜻을 새긴다.